

김민조, 전다빈 두 작가님에게

글. 한성우

얼마 전 '존버거의 사계'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흐릿한 이미지로만 남아있던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 구체적으로 더듬어 보고 싶었던 것인데, 다시 보니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어떠한 장면이 아닌 말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산할 수 없는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것과 동행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이었는데 다시 들어도 참 근사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목적지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향하는 본인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소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달리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같은 불투명함 때문인지, 마주하고 앉아 서로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림에도 저마다의 계산할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그림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라면 그 동행의 길에서 각자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들에 대해 우리는 서로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굳이 말로 내뱉지 않더라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서로가 남기고 있는 흔적의 결들을 더듬어 만져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조 작가님의 그림을 보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대해 혹은 몸이 기울고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닐까마귀>와 <흔적>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의 현실에 보다 가까운 것과 상상이나 환상에 가까운 것 사이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닐까마귀>가 작가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포착하고 상상으로 넘어가는 시작에 대한 그림이라면 <흔적>은 주관적인 세계에서 다시 현실로 한발 되돌아오는 작가님만의 방식에 대한 그림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작가를 잡아당기는 장력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과 현실이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들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때론 서로 충돌하는 듯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림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상과 현실이 혼합된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그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현실로서(눈과 같은) 드러나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작가님만의 표현 방식들, 색과 유기적인 붓질의 방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림에서는 '가장 주관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모순적인 명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작가님의 여러 그림에서 자의적인 색들과 현실적인 색들, 회화적 표면과 원근법의 구도 등 이 함께 드러나는데 이 같이 현실과 상상을 조합해내는 작가의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작가의 몸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도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

게 되었습니다.

한편 언급하신 현실과 늪에 대한 비유, 빛과 어둠이라는 작가님만의 보는 방식 그리고 실제 그림 위에 드러난 이미지와 붓질이 만들어낸 표면들 사이에서, 그리고 싶은 대상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실제 내가 그리고 있는 대상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아주 드물게(거의 기적적으로)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손이 생각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다빈 작가님의 작업들 중 <불일치> 앞에서 유독 더 오래 서있게 되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는 글과 그림을, 둘 사이의 불일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작가에게 있어 그러한 불일치는 해소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작가는 불일치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면위에 드러내어야 할 것, 불일치의 간격자체를 그림에게로, 글에게로 다시금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때문에 저는 작가님에게 비슷한 맥락에서 '글을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이 '소설을 그린다, 그림을 적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두가지가 작가님에게는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글과 그림으로서 그것들이 여타의 방식으로 의미화 되는 것과는 별개로, 쓴다는 행위, 그린다는 행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발화의 행위 자체에 있어서 그 둘의 무게는 같은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언급하신 '진짜언어'를 위한 가능성의 공간을 위해 그 같은 열어젖힘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작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불일치의 관계들 사이를 적극적으로 유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불일치들 사이의 간격은 <소행성>과 같이 때론 가깝고, <관계>와 같이 때론 멀어 보입니다. 문학적인 모티프에서 시작해 그림을 향하는 작업들이 있는 반면 <밤에 대해서>와 같이 시각적, 회화적인 모티프에서 시작하는 그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일치>와 같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여타의 과정들을 한발 물러나 관조하듯 바라본 것처럼 느껴졌던 그림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 유명한 것 이야말로 말과 글, 이미지, 그림들 사이의 불일치를 대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보게 될 작가님만의 또 다른 유명 방식들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단단한 형식의 글을 쓸 자신이 없어서 편하게 편지를 써본다 라는 기분으로 이런 저런 말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함께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전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동료의 넋두리 혹은 메모는 말쑤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시장을 오르는 계단에서 김민조 작가님의 <비닐까마귀>를 보았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아스팔트 바닥 위의 검은 형체. 저는 처음에 그것이 검은 비닐봉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앞에는 그림 안 검은 형상과 비슷한 색과 모양의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그림은 바닥위의 돌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본 작품의 제목은 <비닐까마귀>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그림은 바닥위의 검은 비닐봉지를 그린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니 주차장 도로위에는 그림 안에 보이는 크기만한 돌이 있을 리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섰고 그래서 역시 비닐봉지가 맞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이었던 검은 비닐봉지였던 그게 뭐 대수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닐봉지가 까마귀일 수 있을 때까지가 그림이 시작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다시 찾아보았다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던 말이 앞서 소개한 근사한 말보다 오히려 더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작가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소개를 하며 낯두리를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존 버거가 처음 오토바이를 배우는 소녀에게 오토바이 타는 법을 알려주며 들려준 말 이었습니다.

*간단해*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조작하는 대로 앞으로 갈거야*

*네 시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눈으로 해결책을 찾아*

*그럼 문제 없을거야*